

# 경주지역 건물지의 鎭壇具에 관한 고찰

## : 매납방법과 봉납물을 중심으로

崔 恩 娥\*

### 〈목 차〉

- I. 머리말
- II. 연구사
- III. 진단구의 매납방법과 종류
- IV. 맺음말 - 진단구 매납의 변화와 특징

### 국문요약

경주지역은 1930년대 이래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생활유적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통해 건물지 하부에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토기를 묻은 양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황룡사 9층 목탑지와 서금당지의 기단토 내부에서 청동완·청동도자 등의 금속제 생활용구, 청동방울·은제고리 등의 금속제 장신구류, 금동이식·금동허리띠장식·옥·구슬 등의 장신구류가 출토되었으며, 1980년대 들어 이 유물들에 대해 사리장엄구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건물 축조 시의 의례에 따른 진단구라는 새로운 의견이 제시되어 주목받았다. 이후 왕경유적을 비롯한 다수의 건물지에서 금속제나 토제의 소형용기를 묻은 예가 확인되고 이 유물들에 대해 진단구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었다.

진단구란 건물 축조 시에 건물의 안전과 영속을 위해 지신에게 발원하는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착신앙과 도교의 지신 개념 위에 불교적인 의례행위가 수용되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진 개념으로 황룡사 9층 목탑의 축조시기에 처음 등장한다. 그리고 토지 전체에 대해 지신에게 기원하는 행위를 ‘地鎭’, 건물이나 기단의 축성에 관해 기원하는 행위를 ‘鎭壇’이라 구분

\*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선임연구원.

하기도 한다.

한편 진단구의 매납방법은 散置와 定置의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산치방법은 일정한 수혈이나 특별한 시설없이 적심석이나 기단토 사이에 끼우듯이 넣는 방식으로 용기류·장식구류·생활용구류 등 다종다양한 유물을 매납하였다. 다음, 정치방법은 땅을 정지하거나 기단토를 축조한 후 다시 수혈을 파고 용기를 바로 얹혀 고정하여 묻는 방법으로 주로 합·옹·호 등의 소형 용기류를 매납하였다.

진단구의 매납방법과 봉납물에 따라 진단의례의 변천 및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기에는 황룡사지의 경우처럼 다종다양한 유물을 봉납하였으나 유물의 종류나 배치가 일정하지 않은 산치방식을 보이고 있으며, 황룡사 직후의 건물지에서는 정치방식의 매납도 보인다. 다음, 정치방법이 등장하면서 진단구의 종류가 정형화되어 주로 합·연질소옹 등을 매납한다. 또한 매납형식도 건물 하부에 단독으로 진단구를 묻는 단독매납에서 중앙·동·서·남·북 네방향 十字形으로 진단구를 묻는 군집매납이 등장한다. 그리고 나말여초가 되면 합을 대신하여 장동호·단경호 등 진단구 기종에 변화가 나타나며, 이와 함께 봉납물도 견과류 등 일반적인 곡물의 공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진단구, 산치방식, 정치방식, 단독매납, 군집매납

---

## I. 머리말

경주지역에서는 1930년대 城東洞 殿廊址의 부분적인 발굴조사를 비롯하여 1970년대 皇龍寺址, 月城·鷄林 주변, 1980~2000년대 王京地區 등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생활유적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최근 도시개발 계획에 따라 시내지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곳곳에서 통일신라시대의 도시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건물지의 출토유물은 대부분이 유구 층의 상부에서 확인되어 유구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전에 수습된다. 이러한 가운데 단위건물<sup>1)</sup> 하부, 즉 기단토 내부나 각 건물간의 공간(마당) 지하에서 定置된 금속제나 토제의 용기들이 출토되어 건물지의 성격과 연대 파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유물들은 어떠한 목적에 의해 의도적으로 그 위치에 매납<sup>2)</sup>된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반까지 경주지역의 건물지 발굴조사에 있어 출토유물은 대체로 기증만 구분하여 일괄 처리되어 왔고, 1990년대 초반 이전의 보고서에는 유물 출토상태 사진을 통해 매납유물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정확한 출토 위치나 층위를 알 수 없는 것이 많다. 또한 규모나 형태에 상관없이 貯藏用, 儀禮用으로 보거나 혹은 藏骨容器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발견되고 있는 건물지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매납 유물의 예가 증가하고 있으며 출토 위치 및 수혈에 대한 조사도 상세히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보고자들은 단위건물의 기단토 내부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유물들을 地神<sup>3)</sup>에 대한 제의 행위를 상징하는 鎮壇具<sup>4)</sup>로 분류하고 있다.

1) 건물지라는 용어는 좁게는 한 동의 건물지를 뜻하기도 하고 넓게는 건물지가 확인된 유적 자체, 즉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 부속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한 가옥을 포함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유물의 출토 위치를 표기함에 있어 유적 내에서 건물 하부, 마당, 담장 주변 등 건물과 관련된 다양한 공간을 나타내어야 하므로 혼동이 있을 수 있어 한 동의 건물지를 표현할 때 '단위건물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 李相吉, 2000, 『靑銅器時代 儀禮에 관한 考古學的 研究』, 大邱曉星가톨릭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쪽. 논문에서 필자는 '埋納이란 墳墓에 副葬 또는 埋葬되거나 주거지내에서 출토되는 유물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意圖나 目的을 가지고 특정 유물을 별도의 장소에 따로 묻어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지신의 개념은 중국의 도교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매지권에서 묘지에 대한 신의 보호를 기원하는 주술적인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4) 鎮壇具는 건물 축조 시 건물의 안전과 영속을 위해 지신에게 발원하는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을 의미하며, 토지 전체에 대해 지신에게 기원하는 행위를 '地鎮', 건물이나 기단의 축성에 관한 행위를 '鎮壇'이라 구분하기도 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건물에서 출토된 의례용 매납 유

본고에서는 다수의 건물지 유적이 발굴조사된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진단구의 매납방법과 봉납물을 정리·분류하여 그 변화 양상 및 특징을 알아보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 II. 연구사

진단구로서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은 것은 황룡사 9층 목탑지와 서금당지의 기단토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들이다. 이 유물들은 발굴당시 舍利莊嚴具의 한 양상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건물 축조 시에 행해졌던 鎮壇儀式에 따른 진단구라는 새로운 의견이 제시되었다.<sup>5)</sup>

건물지에서 출토되는 매납유물에 관한 연구는 황룡사 9층 목탑지 하부 출토 유물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황룡사지 보고서 발간 이전에 미탄사지 3층 석탑의 기단부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는 사리장치가 아닌 다른 종교적인 의식에 의한 봉납물로 거론된 바가 있다.<sup>6)</sup>

반면 秦弘燮은 탑의 기단 하부에 매납된 여러 가지 유물을 모두 사리장엄구로 분류하고 있으며<sup>7)</sup> 金正基는 황룡사 9층 목탑지 초석 하부와 기단토 내 출토유물에 대해 사리장엄의 新例로 소개하였다.<sup>8)</sup>

한편, 趙由典은 황룡사지 발굴조사 완료 후 1984년<sup>9)</sup>·1987년<sup>10)</sup>에 걸쳐 9층

---

물을 칭하는 용어로서 지진, 진단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여 ‘진단구’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 용어는 매납 상태에 따라 진단이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현재 보고서 등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 채택하였으며 더 적합한 용어가 제시될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한다.

5)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84, 『皇龍寺 遺蹟發掘調査報告書』 I, V장.

6) 姜友邦, 1980, 『味吞寺址 三層石塔 基壇部 및 基礎發掘調査 略報』, 『박물관신문』 104호.

탑의 상부 구조는 도괴되었으나 기단부 이하는 거의 원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삼국유사』의 기록으로 보아 미탄사일 가능성이 있다. 탑지의 기단부는 상층 기단 내부의 공간에 대략 직경 70cm, 두께 50cm 정도의 화강암 석재 9개를 놓고 사이사이를 자갈과 흙으로 메웠다. 출토유물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부-지대석 사이의 출토품으로 금동불입상 1점, 수정계장석 2점, 금동제영락 1점, 토제벼루편 1점이 있고, 하대 갑석-지대석 사이의 출토품으로 鳥形石製品 1점이 확인되었다. 이들 유물은 탑 건립 당초 봉납한 것으로 생각되며 탑신부에 마련되는 사리장치와는 또 다른 종교적인 의식에 의해 기단부에도 봉납한 것으로 생각된다.

7) 秦弘燮, 1988, 『高麗時代의 舍利莊嚴具』, 『考古美術』 180호.

8) 金正基, 1978, 『舍利莊嚴의 新例』, 『考古美術』 138·139 합집.

9) 趙由典, 1984, 『皇龍寺 遺蹟發掘調査報告書』 I, V장 124쪽.

10) 趙由典, 1987, 『新羅皇龍寺伽藍에 관한 研究』.

목탑지와 서금당지의 기단토 내 출토유물과 그 외 의도적 매납유물에 대해 지진 또는 진단의식과의 관련성을 언급하였다. 이후 1992년<sup>11)</sup>에 다시 한번 황룡사 9층 목탑지 초석 하부와 기단토 내 매납유물에 대해 사리장엄구로 보던 이전의 견해를 부정하고 진단구의 성격을 띤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진단구의 다른 예로 미탄사지와 고려시대 탑지의 몇 예를 들어 사리장엄구로 분류하였던 기존의 의견을 재검토한 뒤 地鎮, 鎮壇에 따른 진단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의하였으며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비교·검토하였다. 그리고 당시 탑지를 제외하고 진단구가 출토된 건물지로 보고된 예가 황룡사 서금당지 뿐이긴 하나 진단공양의 의식이 모든 사원 건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姜友邦은 1991년 舍利具, 地鎮具와 鎮壇具의 문제를 함께 검토하였다.<sup>12)</sup> 그는 일본의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地鎮’은 건축물의 기단을 구축하기 전 지신에게 제사하는 의식이고, ‘鎮壇’은 기단을 구축하여 건축물을 세운 후 공양하여 발원하기 위한 의식이라고 정의하였다. 황룡사 서금당지의 경우는 유물의 대부분이 기단 중심부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진단구라고 말할 수 있지만 9층 목탑지의 심초 하부 및 주변, 심초석의 적심 하부 구축토 유물은 지진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다. 일본의 경우 8세기 나라시대부터 탑과 금당 등에 지진구 내지 진단구를 매납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탑의 기단 축조 중에 散華의 형식으로 진단구를 매납하는 예가 있으나 우리나라보다 반세기 정도 늦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라시대 이래 한국에서는 일정한 의식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공양의식이 행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일본에서는 1960년대 중반부터 건물지 하부 출토유물에 대해 진단구의 개념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 7세기 말 藤原宮, 平城宮 등의 조영 시 鎮祭가 행하여졌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으며 737년에 만들어진 寫經 가운데 『陀羅尼集經』 第12에 “七寶와 五穀 등을 매납한다.”는 기록도 보이고 있어 고대 건물지의 기단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사리장엄구가 아닌 진단구로 설명되고 있다.<sup>13)</sup> 그리고 『다라니집경』은 나라시대에 유통된 밀교경전으로 진단구의 매납은 밀교와 관련된 의식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기록이나 조사된 예로 보아 일본에서는 7세기 말부터 진단공양에 의한 매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토지

11) 趙由典, 1992, 『新羅 皇龍寺 九層木塔址 基壇土 出土 遺物の 性格』, 『中齋張忠植博士華甲紀念論叢』(上).

12) 姜友邦, 1993, 『韓國古代의 舍利供養具, 地鎮具, 鎮壇具』, 『佛教藝術』 209, 每日新聞社.

13) 日本考古學協會, 1962, 『日本考古學辭典』.

전체에 대해 자신에게 기원하는 행위를 地鎮이라 하고, 건물이나 기단의 축성에 관한 행위를 鎮壇이라고 구분하기도 한다.<sup>14)</sup>

이상과 같은 연구를 배경으로 1990년대 이후 발간된 보고서에서는 일반 건물지에서 출토된 매납유물에 대해 ‘제의용’, ‘진단구’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진단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확한 출토위치와 매납상태를 조사·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다양한 건물지의 조사를 통해 진단구에 대한 개념은 확산된 것에 비해 그 종류와 변화양상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2000년대 들어 최은아<sup>15)</sup>, 김성태<sup>16)</sup>의 논문에서 어느 정도 진단구의 종류와 범위, 시기성 등에 대해 연구되어 건물지 조사에 대한 주의를 상기시키고 있다.

### Ⅲ. 진단구의 매납방법과 종류

#### 1. 매납방법

건물지 기단 내부 진단구의 출토상태를 종합해 보면 매납방법에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 가능하며 매납 시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 번째는 기단 축조 시 기단토 내부 적심 사이에 다양한 유물을 흩어놓은 듯 매납한 형식이며, 두 번째는 기단 및 적심 축조 후에 별도의 수혈을 파고 유물을 바로 얹혀 묻은 것이다. 전자를 散置<sup>17)</sup>, 후자를 定置라는 용어로 정의하고자 한다.

##### 가. 散置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조사의 특성상 명확히 확인되는 예가 많지 않지만 황룡사 9층 목탑지, 서금당지 기단 조사 시 확인된 유물과 傳천관사지

14) 木内武男, 1966, 『舍利埋納と鎮壇』, 『世界考古學大系』 4, 平凡社; 藏田 藏, 1971, 『舍利容器と鎮壇具』, 『新版 考古學講座』 8, 雄山閣; 中野政樹, 1975, 『鎮壇具』, 『新版 佛教考古學講座』 第2卷 寺院, 雄山閣; 森 郁夫, 1977, 『奈良時代の鎮壇具埋納』, 『研究論集Ⅲ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學報』 第29冊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森 郁夫, 1979, 『古代における地鎮・鎮壇具の埋納』, 『古代研究』 第28號; 奈良文化財研究所, 2003, 『古代の官衙遺蹟』 I 遺構編, 164쪽.

15) 최은아, 2004, 『경주지역 출토 진단구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김성태, 2005, 『고대 건물지의 진단구에 대하여』, 『영남문화재연구』 16호.

17) 강우방과 일본 연구자들은 사리장엄구의 매납과 관련하여 散華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진단구의 출토상태로 보아 용기류의 뚜껑을 덮어 바로 얹히기도 하고 내부에 다른 동반유물을 넣기도 하며 장신구류의 경우에도 출토상태가 정연한 점이 있어 여기서는 散置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건물지 1·2 기단 토층 조사 시 출토된 유물 등이 있다. 두 건물지에서는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모두 기단을 축조하는 과정에 산치 방식으로 유물을 매납하였다. 즉 일정한 수혈이나 특별한 시설 없이 적심석 사이나 기단토 사이에 끼우듯이 넣은 것이다.<sup>18)</sup>

먼저 황룡사지의 진단구 출토상태 및 매납 층위를 살펴보겠다. 9층 목탑지와 서급당지에서 다수의 유물이 확인되었으며 층위와 종류를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유물은 수량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생활용구류, 장식구류, 장신구류, 기타로 나누어지며 적심부에서 가장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 황룡사 9층 목탑지 출토 진단구

출토위치	생활용구류	장식구류	장신구류	기타
심초석 상면 ~ 128cm (심초석 두께 깊이까지)	청동완 3점 청동도자 1점 철도자 2점	동물형금동장식구 1점 기타 금동 및 청동제 다수	금동태환이식 1쌍 수정제곡옥 1점 유리곡옥 9점 수정제다면옥 3점 유리구슬 1,494점	백자소호 1점 (중국제) 금속제파편류 다수
128~168cm (적심부 깊이 까지)	청동완 9점 청동유개합 1점 청동뚜껑 2점 은도자 1점 철도자편 21점 철제가위 4점 철부 1점 철검 2점 청동침통 1점	동경 3점 은제고리 27점 청동제고리 8점 청동방울 4점 청동제장식구 2점 금동관불 1점 그 외 다수	금동제허리띠장식 2점 청동팔찌 1점 금구슬 1점 금동구슬 3점 마노구슬 1점 유리구슬 1,927점 곡옥류 71점 다면옥 14점 관옥 4점	금동제호형의기 1점 공기돌 5점 은제관구 1점 그 외 다수
적심석 하부 기단 구축토	청동완 1점 청동뚜껑 1점 금동도자 1점	은제고리 2점 청동고리 2점 청동방울 1점 동물형장식구 1점		용도미상의 금속제품류 약간

청동완류는 모두 20여 개체분이 출토되었으나 형태를 알 수 있는 것은 12점에 불과하며 적심 사이에 3점이 포개어져 출토되거나 엮어놓은 상태로 출토되기도 하였다. 중국제 백자유개호는 최대경이 10cm인 소형으로 적심석 사이에 화강암제 덮개들을 씌운 상태로 출토되었으며 내부에서 뼈성분의 물질이 확인되었다.

<sup>18)</sup> 일본은 川原寺, 元興寺, 法華寺 등의 사원유적에서 이러한 방법의 매납이 이루어졌음이 보고되고 있다.

동경 3점 중 소문경은 적심석 하부의 고운모래층에서 청동방울, 유리구슬과 함께 출토되었다. 옥류는 마노제, 벽옥제, 유리제, 수정제 등 재질이 다양하다.

다음으로 서금당지 기단 내부토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다수가 기단 중심부에 집중되어 출토되었고, 그 유물 출토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황룡사 서금당지 출토 진단구

출토위치	생활용구류	장식구류	장신구류	기타
기단 중심부	청동완 18점 청동합 1점 청동가위 1점 철도자 1점	은제고리 청동탁편 1점 금동원형장식구 불장식구 은제금구	금동태환이식 3쌍과 2개체분 금동허리띠장식 각종옥류 15점 유리구슬 6점	청동제판구 6점

이상과 같이 서금당지에서는 수량은 적으나 목탑지 출토유물과 거의 유사한 양상으로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공통적으로 금속유물을 천에 싸서 매납한 흔적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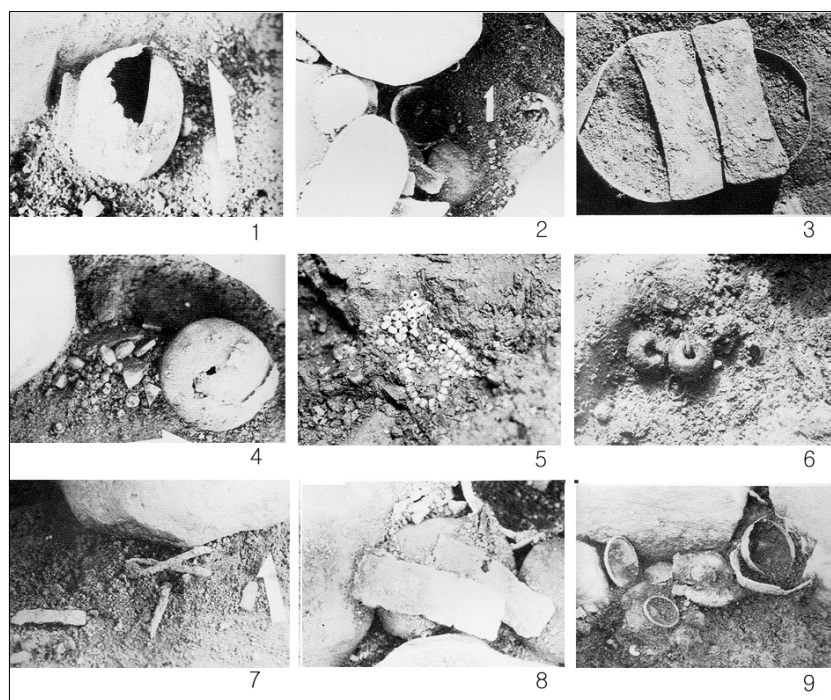


그림 1. 황룡사지 출토 진단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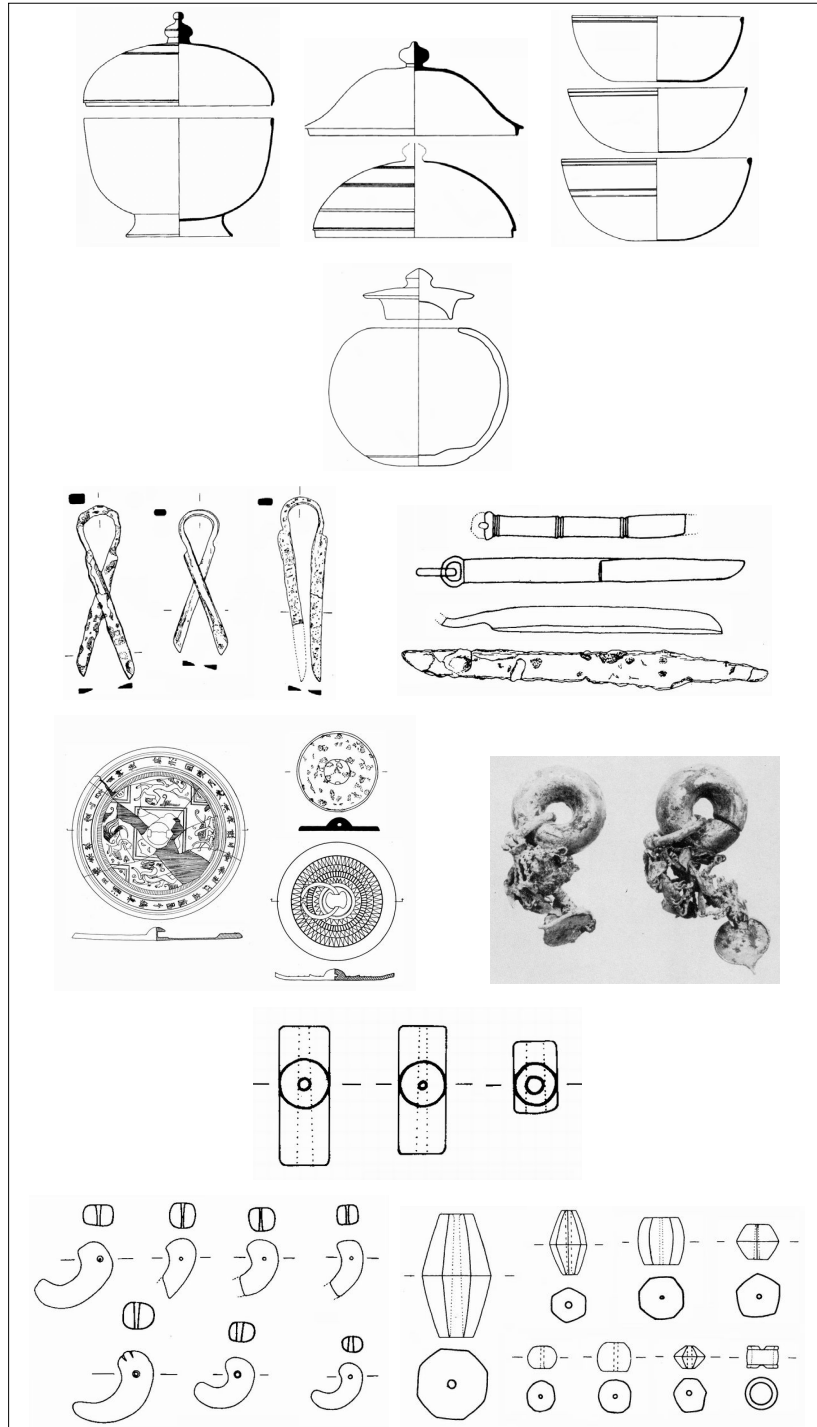


그림 2. 황룡사 9층 목탑지 출토 진단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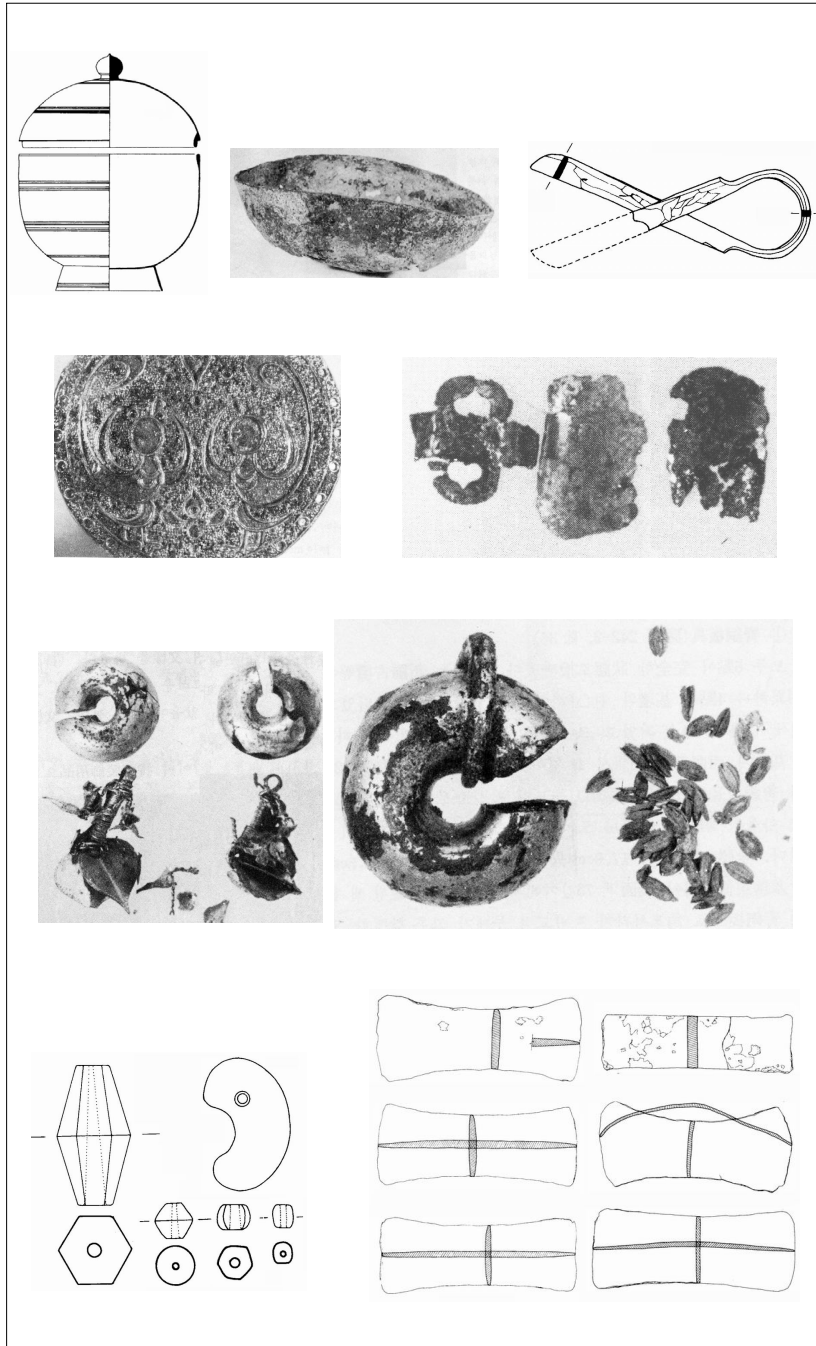


그림 3. 황룡사 서금당지 출토 진단구

이와 달리 목탑지 출토 중국제 백자유개소호는 덮개들을 따로 씌우는 등 定置방법으로 매납되어 주목된다. 이 백자유개소호는 탑의 초축 시기와는 다른 8세기대의 유물로, 8세기 이후 이루어진 탑의 수리 또는 재건<sup>19)</sup>시 추가 매납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散置 매납 이후 추가 매납에서 定置방식을 보이는 예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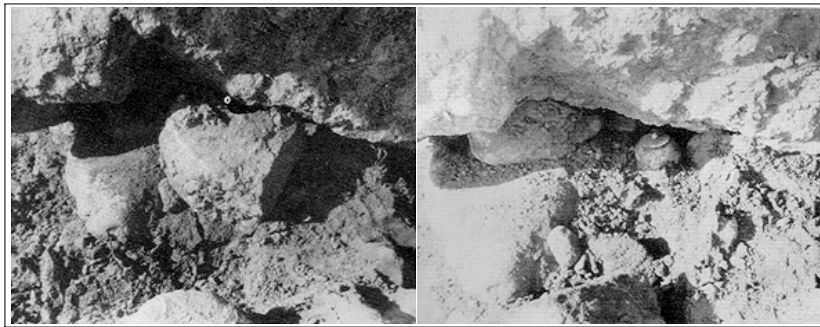


그림 4. 황룡사 9층 목탑지 하부 백자유개소호 출토상태

다음으로 천관사지<sup>20)</sup>는 건물지 7개소와 문지 1개소가 조사되었으며 그 중 건물지 1과 2의 기단토 내부조사에서 호, 고배, 배, 개 등 다수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특히 고배, 배, 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잔존상태는 양호하다. 주로 斜格子文과 圓點文이 시문되었으며 주로 6세기대 초중반의 황룡사지와 비슷한 시기의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두 유적의 예<sup>21)</sup>를 종합하면, 散置方式은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해

19)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84, 『皇龍寺 遺蹟發掘調査報告書』 I, 29~30쪽.

20)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4, 『慶州 天官寺址 發掘調査報告書』.

21) 산치방식의 다른 예로 미탄사지는 3층 석탑의 기단부에서 금동불입상 1점, 수정제장식 2점, 금동계영락 1점, 토제벼루편 1점, 鳥形石製品 1점 등이 출토되었다. 석탑은 양식상 건립연대는 9세기 중엽으로 추정되나 기단부 봉납유물은 석탑 건립 이전, 즉 통일 초 이후의 것이다. 따라서 사찰은 통일신라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남아있는 석탑 이전에 선행하던 탑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자들은 보고하고 있다. 황룡사지 9층 목탑과 미탄사지 삼층석탑은 시기와 성격이 전혀 다르며, 미탄사지의 출토유물이 석탑과 관련된 것인지 이전의 어떠한 형식의 탑과 관련된 것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유형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 외 경주지역에는 사찰과 탑이 조사된 예도 다수 있으나 경주지역의 석탑 조사의 특성상 대체로 정비, 보존 목적이므로 기단부 및 기초부의 해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석탑 하부 매납에 대한 정확한 양상을 밝히기가 어렵다. 또한 일반 건물지의 경우에도 기단 조사는 대체로 좁은 폭의 트랜치조사로 토층만 밝히는 경우가 많고 혹 1~2점의 유물이 출토되더라도 우연히 쓸려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앞으로 건물지 조사에 있어 기단부의

볼 수 있다.

첫째, 단순히 개별 유물만 놓은 것으로 생활용구류, 장식구류, 장신구류 등 다양하다. 목걸이나 이식 등 여러 점으로 연결된 제품 중 출토상태가 매우 정연한 것은 현재 흔적은 남아 있지 않으나 천으로 싸거나 나무곽에 넣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둘째, 천 등의 섬유질로 싸 흔적이 확인된 것으로 장신구류, 용기류, 동경 등에서 확인되었다.

셋째, 용기류에 구슬, 가위, 판구류 등을 넣은 것으로 이 방법은 어느 정도 정치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으로 용기류의 경우에도 완 몇 점을 겹쳐 포개어 매납한 것과 같은 예는 용기 그 자체로 첫 번째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산치 매납의 경우는 건물지의 기단토 뿐만 아니라 단위건물 외부에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일부 예가 확인되기도 한다.<sup>22)</sup>

#### 나. 定置

앞에서 언급한 황룡사지, 천관사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적에서는 땅을 정지한 후, 또는 기단토를 축조한 후 다시 수혈을 파고 용기를 바로 얹혀 고정하여 묻는 정치방식이 확인된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정확한 수혈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수혈의 형태나 구조 양상을 확실히 파악할 수 없다. 다만 현재 확인되는 몇 예<sup>23)</sup>를 통해 매납할 용기보다 약간 큰 원형 또는 타원형의 수혈을 파고 용기를 매납한 후 돌이나 기와를 고인 것으로 생각된다.

정치방식의 진단구는 매납된 유물 양상으로 보아 먼저 크게 용기를 수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주지역에서 현재까지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정치된 진단구는 대부분이 용기류를 수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용기의 용도는 무엇을 담기 위한 것이며 진단구로 사용된 다양한 용기 또한 내부에 공양물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내부의 공양물이 확인되는 경우는 소수의 금속제품이나 구슬이며, 대부분의 경우는 비어 있는 상태로 출토된다. 내면에 유기물의 흔적이 남아 있는 예도 다수 있으나 대부분 분석되지 않아 알 수 없다. 단지 남아 있는 예와 현대의 민속학적 예를

전면조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2) 김성태, 앞의 논문. 월성해자 출토 곡옥, 뼈화살촉, 칠기제빗, 구슬, 기마인물형 토우와 천관사지 출토 기마인물형 토기 등을 진단구로 분류하였다.

23) 진단구 수혈의 평면을 확인하고 허부 단면까지 파악한 것은 북문로 왕경유적, 서부동 4-1번지 유적에 불과하다.

참고한다면 곡물, 동물뼈, 혹은 종이류 등이 봉납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내부 출토품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용기류 매납은 한 점을 매납한 경우가 다수이기는 하나, 때로는 2점 또는 3점 이상이 일정한 간격이나 무작위로 매납된 예도 확인된다. 이렇게 여러 점 매납하는 경우는 출토 위치 또한 단위 건물의 하부가 아닌 외부로 나타난다.

매납되는 용기 수와 배치를 참고하여 1점 매납을 단독매납, 2점 이상을 군집매납으로 나누어 보았다.

표 3. 유적별 정치된 진단구의 기종과 수량

번호	유적명	금속기 (합,완,호)	토기						기타	계
			합	장경호	연질소용	장동호	단경호	피수부용		
1	황룡사지					7	7		2	16
2	분황사담장신축지						1			1
3	傳 인용사지					2	3			5
4	안압지(임해전지)		2							2
5	신라왕경SIE1		55		4	4	3			66
6	傳 재매정지	1	1			1	1	3	1	8
7	동부동159-1		1		1					2
8	동천동681-1								1	1
9	동천동791		2		1	1				4
10	서부동4-1		2							2
11	서부동19				4					4
12	성동동전랑지	2						1		3
13	성동동228-4		1			4	1	2		8
14	황남동192-4		2							2
15	황남동194-11,12		1		5					6
16	동천동793		1		1					2
17	성건동342-17		2			2				4
18	동천동690-3		1							1
19	황오동326-1					1				1
20	동천동530-534		1							1
21	성동동150-3		1				1	1		3
22	황남동123-2		2						5	7
	계	3	73	2	16	22	17	7	9	149

(1) 단독매납

단독매납은 한 번의 의례에 1점의 진단구를 매납한 경우를 말하며, 진단구의 모든 기종, 모든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고 주로 기단 내부, 담장 부근에 분포한다.

합은 인화문이 시문되는 단계에는 1예를 제외하고는 매납 위치에 상관없이 모두 단독매납형식으로 나타난다. 인화문이 소멸된 단계에 들어서면 단독매납은 계속 이루어지며, 담장 부근에서 ‘十’자의 군집매납이 2예 확인된다. 연질소용의 경우에도 서부동 19번지의 위치 미확인의 3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독으로 매납되었으며 장동호 및 단경호는 다른 기종에 비해 군집매납의 예가 많은 편이나 단독매납이 역시 다수를 차지한다.

최근 보고된 진단구의 양상으로 보아 단독매납은 대부분 작은 원형의 수혈을 파고 용기를 매납하였다고 생각되나 2000년대 이전의 보고서에서는 수혈의 규모조차 밝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매납상태는 도판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수혈 외에 다른 시설을 한 경우는 다음 5가지 예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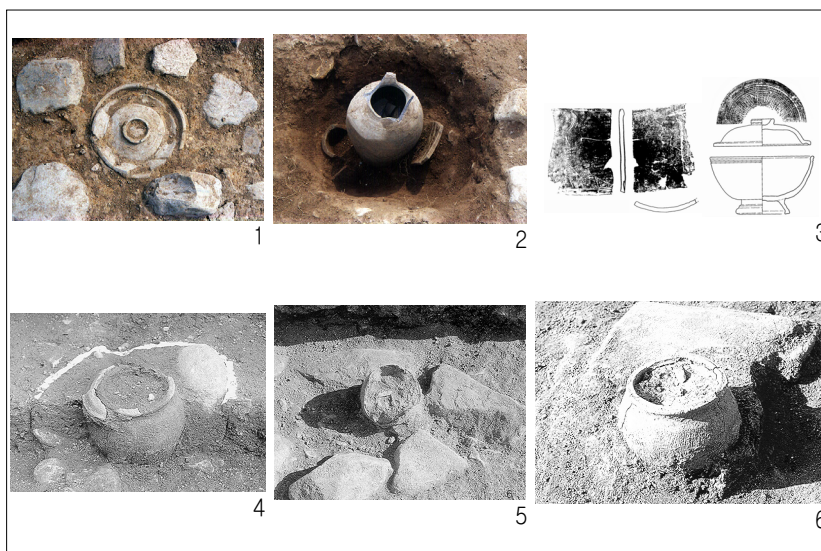


그림 5. 단독매납 양상

왕경S1E1유적의 12가옥 담장 옆에 매납된 합 주변으로 돌을 둥글게 돌려놓은 양상 그림 5-1 이 보이며 13가옥의 장동호는 저부 옆에 기와편을 끼워 받쳐놓았다 그림 5-2. 서부동 4-1번지에서 출토된 합 2점 중 1점은 상부에 암기외를 한 겹

덮어 매납하였다 그림 5-3. 황남동 194-11·12번지 유적의 연질소용(내부에서 유리구슬 출토)은 하부에 편평한 천석을 놓은 경우와 하부 및 둘레로 돌을 끼워 놓은 경우가 확인된다 그림 5-4~6. 그 외 유적에서도 사진자료상 진단구 주변으로 돌 1~2개가 확인되는 경우가 다수 있으나 완전히 노출하지 않거나 수혈을 확인하지 않아 확실한 양상은 알기 어렵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단독매납에서 진단구 둘레나 하부에 돌이나 기와편이 확인되는 경우는 단순히 용기를 고정하기 위해 이용한 예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황남동의 경우와 같이 편평한 천석을 깔 경우는 소형의 壇과 같은 기능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왕경S1E1유적과 같이 둘레에 돌을 비교적 넓게 둘러 에 또한 주목된다.

## (2) 군집매납

군집매납은 한 번의 의례에 2점 이상의 용기류를 묻은 형식을 말한다. 현재까지 조사 확인된 것은 모두 7예 있으며, 각각의 출토위치와 특징은 표 4와 같다.

군집매납은 합의 2단계에서 2점 매납이 1예, 3단계에서 5점을 기본으로 하는 십자형 매납이 2예 확인되며 합 2단계와 같은 시기의 연질소용에서 3점 매납이 1예, 다음시기인 장동호 및 단경호류에서 2점 또는 다수의 매납이 확인된다.

합 1단계까지 단독매납만 확인되는 것에 비해 이후로 매납양상이 다양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단독매납에서 군집매납으로 완전히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매납은 계속 이어지고 합 2단계 시기부터 군집매납이 등장하여 소수 이루어지는 양상이다.

군집매납 중 수혈외 특별한 부속시설이 확인되는 것은 왕경 S1E1유적의 십자형 군집매납에서 합의 하부에 강돌 등의 자갈을 놓고 붉은색의 안료를 뿌리거나 칠한 경우이다. 이러한 시설은 1991년도 왕경조사에서 확인<sup>24)</sup>된 것으로 당시 정확한 양상은 밝히지 못하였고 하부의 붉은 안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왕경S1E1 유적에서 확인된 십자형 배치와 하부의 강돌 및 붉은 안료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지금까지 경주지역에서 왕경S1E1유적에서만 확인되었다. 붉은색은 태양을 상징하고 잡귀를 쫓는 색으로 인식되어 벽사의 의미로 널리 쓰인다. 이러한 붉은색의 칠은 분묘유적에서 몇 예가 알려져 있으며 황남대총 남·북분의 적석부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sup>25)</sup>.


2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992, 『1991年度 新羅王京遺蹟 發掘調査』, 『연보』. 십자형 배치 2예와 그 외 일자형 배치 1예가 소개되어 있으나 일자형 배치는 합의 형태나 정확한 위치 등을 알 수 없다.

傳 재매정지의 4점 군집매납 예를 출토상태를 통해 살펴보면 먼저 장동호와 파수부옹 1점을 장동호의 바닥 레벨에 맞추어 넣고 일정 높이까지 묻은 뒤 다시 2점의 파수부옹을 장동호의 구연부 레벨과 맞추어 매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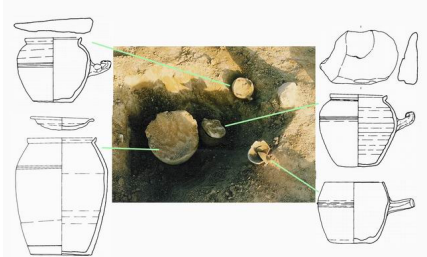


그림 6. 傳 재매정지 - 장동호와 파수부옹 군집매납 상태

표 4. 유적별 군집매납 양상

유적	매납양상	매납위치 및 특징
왕경S1E1		2가옥 건물 하부. 합 2점(1점은 소형이고 내부에 구슬 46점이 확인됨.)
		4가옥 담장 옆. 합 5점이 '十'자형으로 배치됨. 남쪽 1점 유실.

25) 이은석, 1998, 『新羅 皇南大塚에 관한 研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쪽. 황남대총 남·북분 모두 함몰된 적석부 조사시 광외는 물론 광내에서도 상당수 丹漆 냇돌이 확인되었다. 목관과 목곽 부재에서도 확인되며 정확한 용도는 알수 없고 다만 벽사의 의미를 지닐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p>왕경S1E1</p>		<p>5가옥 담장 옆. 합 3점이 '十'자형으로 배치됨. 남쪽과 서쪽 2점 유실.</p>
<p>왕경S1E1</p>		<p>13가옥 마당. 장동호 1점과 단경호 1점</p>
<p>황남동 123-2 (일성해자 주변 건물지)</p>		<p>담장형 유구 남쪽편. 수혈을 파고 원저단경호를 매납. 단경호 위에는 인화문이 시문된 뚜껑이 덮여 있음. 수혈은 6개가 일렬로 배치되었으나 토기는 5개만 확인됨.</p>
<p>傳 재매정지</p>		<p>18호 건물지. 장동호 1점을 중심으로 파수부용 3점을 돌려 배치함.</p>
<p>서부동 19</p>		<p>건물지 주변. 연질소용 3점이 일렬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매납됨. 1점은 유리구슬, 1점은 새뼈 확인.</p>
<p>북문로왕경</p>		<p>장동호 2점 인접하여 매납. (1점은 내부에 견과류 확인)</p>

한편 사지에서는 금당, 회랑, 부속건물지의 기단 내부 및 외부에서 장동호 및 단경호의 매납이 확인되는데 이와는 다른 특수한 경우로는 탑지 및 석등지의 기단 주변에 돌아가며 매납된 장동호 및 단경호류가 있다.

황룡사지 석등지 주변으로 9점의 호류가 확인되는데 장동호 1점과 병 1점, 단경호 4점, 기형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호류 3점 등이다(그림 7).

傳 인용사지에서는 동탑의 남변에서 1점, 서탑의 북·서변에서 각각 2점씩, 총 5점의 호류가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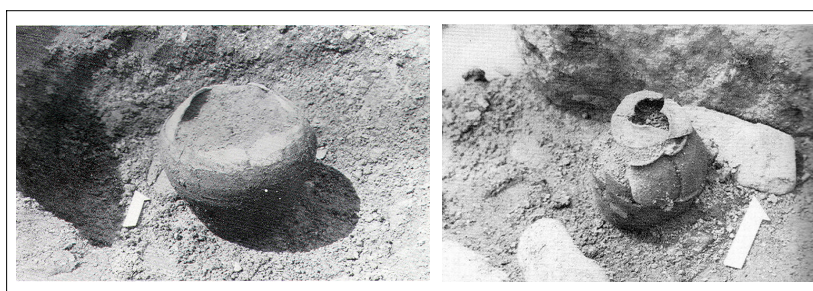


그림 7. 황룡사지 석등지 주변 매납 토기

이렇게 석등이나 석탑과 같이 불교 석조물 주변에 다수 매납된 호류는 진단구의 성격과 달리 불경을 땅에 매장하는 經塚<sup>26)</sup>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sup>27)</sup>

그러나 사원의 금당과 승방, 회랑 등의 부속건물 하부에서 출토되는 호류의 경우에는 진단구의 성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찰의 이러한 기종변화가 당시 합, 완, 명 등의 소형 기종이 자기류로 대체되던 시기에 일반적인 진단구의 기종 변화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 2. 진단구 내부 捧納物

진단구는 진단의례에 쓰인 모든 물품으로 용기류 및 내부 반출유물을 모두

26) 石田茂作, 1977, 『經塚』, 『新版 佛教考古學講座』 第6卷 經典·經塚·雄山閣.

경총은 불경을 매장하는 시설로 말법사상과 관련이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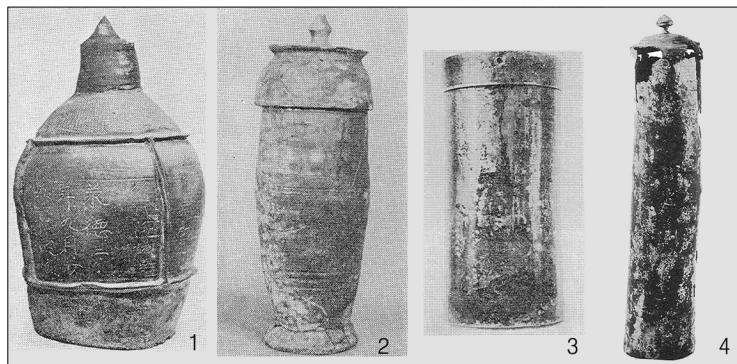
27) 경총은 일본에서 많이 확인되고, 북한에서는 5~6세기경의 경총이 발견되었다. 남한지역에서는 뚜렷한 매장 예가 알려져 있지 않지만 황룡사지 출토품으로 전하는 경통과 현재 전하지는 않으나 창림사지 석탑에서 출토된 경통 관련 기록이 있다. 이들 경통은 이전의 합과는 다른 긴 기형이 많은 점과 탑 주변에 여러 점 돌려 매납된 점 등을 볼 때 불교와 관련된 경총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며 내부에 다른 반출유물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호 내부에 紙本經을 넣은 經筒의 용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포함한 것이다. 특히 정치방식의 매납은 수혈의 설치 및 용기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정치된 진단구는 모두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sup>28)</sup> 진단구로서 용기류의 사용이 주류를 이루는 것은 무엇을 담고자하는 기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리된 대다수의 진단구가 빈 용기만 확인되었으나 내용물이 남아 있는 예도 있다. 본 장에서는 이 내용물을 봉납물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종류 및 출토유적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봉납물의 종류

각 유적별로 봉납물이 확인된 용기와 봉납 내용 및 매납위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모두 28건이 확인되고 있으며 유리구슬, 동물뼈, 벼, 견과류, 동전, 철도자 등 종류가 다양하다. 특히 최근 확인된 월성해자 주변 황남동 123-2번지 유적<sup>29)</sup>의 합에서 확인된 봉납물은 불명 유기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이루어져 천연안료인 황칠임이 확인되었다(그림 8).



각종 경동 1.日本岡山縣大土井經塚出土-陶製外容器, 2.日本福岡縣太宰府町出土, 3.日本奈良縣金峯山出土, 4.한국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仲和三年銘 經筒  
<sup>28)</sup> 경주 천관사지의 기마인물형 토기와 같이 용기는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산치와는 다른 매납으로 보이는 예가 있기는 하나 확실한 출토상태를 알 수 없어 정의하기 어렵다.  
<sup>29)</sup>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6, 『慶州 皇南洞123-2番地 遺蹟 發掘調査 諮問委員會議』.



그림 8. 황남동 123-2번지 출토 합 내부 유기물

표 5. 봉납물 및 매납위치

유적명	용기	봉납물	매납위치
황룡사지	금속제용기류 (합, 완 등)	구슬, 장식구, 허리띠, 가위, 아연제판구	9층 목탑지, 서금당지 기단 내부
	중국계 백자유개호	내부에서 뼈 성분 물질 확인	9층 목탑지 기단 내부
	금동계태환이식	고리 내부에 버	서금당지 기단 내부
분황사지	단경호	1.2cm의 구슬 10점(재질불명), 철도자 1점	미확인
안압지	호	개원통보 4매, 유리옥 4점, 부식된 골편	건물지(추정 임해전지) 기단 내부
왕경S1E1	합(소형)	유리구슬 46점	기단 내부
	합	잔돌 3개	담장옆 十자
	합	암갈색산화물	담장 옆
	합	구연 안쪽에 철녹 부착	중형 배수로
	연질소용	흑갈색 이물질	기단 내부
	연질소용	동물뼈 조각	기단 내부
	연질소용	내외면에 흑갈색 불순물	기단 내부
	단경호	내면에 암갈색 산화물	기단 내부
傳 재매정지	청동제합	탄화미	기단 내부
	단경호	흑갈색 유기물	기단 내부
서부동19	연질소용	구연 내면에 그을음	건물지 주변
	연질소용	유리구슬 17점	건물지 주변
	연질소용	새뼈	건물지 주변
북문로왕경 (성동동228-4)	장동호	견과류, 납작한 천석	미확인
	장동호	견과류, 납작한 천석	미확인
	장동호	견과류	미확인
	단경호	견과류	장방형석군 하부
	파수부용	견과류, 천석 5개	담장 옆
황남동 194-11	연질소용	유리제 소옥 26점	건물 하부
	연질소용	유리제 소옥 22점	담장 옆
동천동 690-3	합	탄화된 이물질	건물 기단 인접
황남동 123-2	합	적갈색 유기물 - 황질 덩어리	기단 내부

기종과 봉납물을 종류별로 다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기종별 봉납물

기종	유리구슬	유기물				기타	계 (용기 수량)
		불명	뼈	벼	견과류		
호	1		1			1(동전 4점)	1
합	1	2 (황칠 1)				1(잔돌 3개)	5
연질소용	3	1	2			1(그을음)	7
파수부용					1		1
장동호 및 단경호		3			4	1(불명구슬 10, 철도자 1)	8
금속제용기				1			1
기타			1	1			2
계	5	7	4	2	5	4	25

유리구슬이나 동전 등은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유기물은 변수의 여지가 많은 편이다. 유기물의 종류 중 불명으로 표현한 것은 용기 내면의 저부쪽에 암갈색으로 얇게 부착된 부정형의 흔적<sup>30)</sup>으로 경주지역에서 출토된 토기에서 다수 확인되고 있는 양상이나 과학적인 분석을 한 경우가 없다. 최근 황남동 진단구의 황칠안료 분석으로 자료의 축적이 시작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어떤 물질이 산화되어 흔적을 남긴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견과류는 4점 모두 형태가 확인된 것이 아니라 내부토의 잔존지방산 분석을 통해 견과류로 판명된 것이다<sup>31)</sup>. 견과류와 비슷한 것이 제의행위에 사용된 예로는 대구 시지유적의 우물에서 호 안에 복숭아씨가 가득 채워진 것을 들 수 있다<sup>32)</sup>. 이것은 우물에 치러진 제의행위의 결과물로 연구되고 있다<sup>33)</sup>. 의미는 다를지라도 제의행위라는 공통적인 요소는 주목되는 바이다.

유리구슬은 장경호, 소형합, 연질소용에서만 출토되었다. 장경호를 제외하면 모두 의례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용기이다. 장경호도 임해전지에서만 발견된

30) 각 보고서마다 흑갈색, 암갈색, 회색의 이물질, 산화물, 유기물 등 다양한 표현으로 기술하고 있을 뿐 정확한 성격은 밝혀진 바 없다.

31) 복숭아, 자두 등의 씨앗도 견과류와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32) 국립문화재연구소, 1996, 『대구 시지동』 I.

33) 김창억, 2004, 『우물에 대한 祭儀와 그 意味』, 『嶺南文化財硏究』 17.

기종이며 유리구슬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봉납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유리구슬은 여러 점이 길게 연결되는 형식으로 건물의 영속을 기원하는 의미로 추정된다.

황칠, 견과류 또는 복숭아씨, 구슬 등 모두 변하지 않는다, 단단하다, 길다, 등 오랜 시간 변하지 않는다는 공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림 9. 용기와 봉납물

당시 중요한 곡물이었을 벼는 재매정의 금속제 용기와 황룡사지의 태환이식 내부에서만 확인되었다. 벼(쌀)는 현재 지신을 위한 신체에도 쓰이고 있는 곡물로 지역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단지에 쌀을 넣어 집안, 뒤뜰, 장독대 옆 등에 모시는 민속이 남아 있다.<sup>34)</sup>

뼈는 임해전지의 호와 중국제 백자소호에서 출토된 것은 부식이 심하여 성격을 알 수 없고, 왕경SITE1 유적 출토의 연질소용에서는 동물 뼈<sup>35)</sup>, 서부동 19번지의 연질소용에서는 새 뼈로 확인된다. 이것은 동물의 희생을 동반한 제물의 성격으로 추측된다.

기종별로 살펴보면 합의 경우 내용물에 대한 단서가 부족하다. 합의 뚜껑과 세트틀 이루어 내용물을 보호·보존하기 적합한 기종으로, 전체 진단구 출토 예 가운데 1/3 이상을 차지하여 통일신라 전시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뚜껑과 합의 구경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 내용물의 보존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7.

<sup>34)</sup>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1996, 『서울 六百年史』.

<sup>35)</sup> 조사자에 의하면 소나 말의 뼈로 생각되나 분석을 거치지 않아 확실한 동물의 종류는 알 수 없다고 한다.

표 7. 합 및 유개완의 뚜껑과 합의 구경 비교

뚜껑 > 합	뚜껑 < 합
47	13

기형이 확인되는 60점 중 뚜껑이 합보다 작아 내용물을 보호하기에 부적당한 예가 전체의 1/4 정도에 해당하며 이러한 점은 진단구로서도 내부에 귀중품을 넣었다기보다 의례적인 의미의 물질을 넣거나, 빈 용기 자체로 의미를 가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합 내부에서 다른 물질이 검출된 예는 전체 70점 중 5점에 불과한데,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소형의 합에 유리구슬을 넣은 것 1점, 작은 돌 3점을 넣은 것 1점, 내면에 흑갈색 화물이 부착된 것 2점, 그리고 최근 발견된 황칠 안료가 부착된 것 1점 등이다. 이 5점의 합은 모두 뚜껑이 완전히 덮이는 형태인 점이 주목된다.

연질소용은 기종 자체도 의례 용기이면서 봉납물에 있어서도 유리구슬과 동물 뼈 등, 의례적인 성격이 강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서부동 19번지에서는 구슬이 들어 있는 것과 새 뼈가 있는 것이 나란히 매납되어 특별한 의례를 짐작케 한다.

장경호 및 단경호는 내부토의 잔존지방산 분석을 통해 견과류 등이 확인되었다. 이들 호류는 합과 연질소용이 각각 형태와 재질상의 특징으로 액체를 담기 부적합한 것에 반해, 도기질이며 그릇의 입구가 비교적 좁아 술·정화수 등의 액체류를 봉납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봉납물과 출토유적

경주지역의 건물지 유적은 통일신라 왕경의 범위에 따르면 경주지역 전체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약 50여건 가량의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구황동의 왕경 SIE1유적 이외에는 대체로 좁은 범위의 조사에 그쳐 유적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예가 드물다. 봉납물이 확인된 유적을 검토하여 봉납물의 성격을 알아보고자 한다 표 8.

봉납물이 확인된 유적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황룡사지, 분황사지, 안압지, 왕경 SIE1(구황동), 傳 재매정지, 서부동 19번지, 북문로 왕경(성동동), 황남동 194-11·12번지, 동천동 690-3번지, 황남동 123-2번지 유적 등이다.

봉납물 중 형태가 남아 있어 종류가 정확히 알 수 있는 유리구슬, 벼, 뼈를 중심으로 출토유적의 성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8. 유적별 봉납물

유 적	유리구슬	유기물				기타
		불명	뼈	벼	견과류	
황룡사지	○		○	○		○
분황사담장신축지						○
傳 인용사지						
안압지(임해전지)	○		○			○
신라왕경S1E1	○	○	○			○
傳 재매정지		○		○		
동부동 159-1						
동천동 681-1						
동천동 791						
서부동 4-1						
서부동 19	○		○			○
성동동 전랑지						
성동동 228-4					○	
황남동 192-4						
황남동 194-11,12	○					
동천동 793						
성건동 342-17						
동천동 690-3		○				
황오동 326-1						
동천동 530-534						
성동동 150-3						
황남동 123-2						○(황칠)

표 9. 진단구 내부 봉납물과 유적의 성격

봉납물	출토유적	기종	건물의 성격
유리구슬	안압지	호	동궁으로 추정.
	왕경유적	합	왕경 S1E1유적의 한 방내에서 제2 가옥에서만 출토되었는데 바로 옆의 제1 가옥이 탐과 금당을 갖춘 사원으로 추정되는 건물임.
	황남동 194	연질소용	‘官井’명 명문와, 당삼채, 목간용 削刀가 출토되어 관청 건물로 추정.
	서부동 19	연질소용	왕경 남북도로(폭 12m) 동편의 건물지. 조선시대 옥지가 들어선 곳.
	황룡사지	청동합	불교사원, 국찰의 성격. 9층 목탑지, 서금당지.
벼	傳 재매정지	청동합	김유신의 고택으로 알려짐.
	황룡사지	금동태환이식	불교사원, 국찰의 성격. 서금당지.
황칠 (유기물)	황남동 123-2	합	월성해자 주변의 건물지로서 정면 10칸, 측면 2칸. 위치나 구조로 보아 종묘사직 혹은 관청 건물로 추정.
뼈	황룡사지	백자소호	불교사원, 국찰의 성격. 서금당지.
	안압지	호 (부식 골편)	동궁으로 추정.
	왕경 S1E1	연질소용 (동물 뼈)	제7 가옥내 중심 건물.
	서부동 19	연질소용 (새 뼈)	왕경 남북도로(폭 12m) 동편의 건물지. 조선시대 옥지가 들어선 곳.

그 외 견과류 등의 곡물이 봉납되거나 불명유기물이 확인된 건물지는 특별한 성격이 밝혀지지 않은 일반 건물지이거나 상부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다.

봉납물을 출토유적별로 살펴보면 표 9 유리구슬은 국찰을 비롯하여 궁·관청 등 국가와 관련된 공공건물에서 출토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벼(쌀)는 황룡사지와 귀족의 저택으로 알려진 재매정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동물 뼈의 경우는 확실한 동물의 종류가 밝혀지지 않아 아쉬움이 있으며 또한 자연 그대로인지 조리된 음식의 형태인지도 알 수 없다. 벼와 뼈는 유기물이므로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현재 확인된 사례만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일반에 널리 사용된 봉납물

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봉납물을 살펴본 결과, 확인된 예가 적어 단정할 수는 없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예로 보아서는 봉납물의 사용에 신분이나 계층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합이 다수 매납되는 시기는 진단구의 확산기로 추정되며, 합의 봉납물에 유리구슬이나 벼 등의 귀중품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은 진단의식이 일반층으로 확산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합이 일반층에 널리 쓰인 반면 같은 시기에 사용된 연결소용은 내부에 유리구슬 등이 봉납되어 관청 등의 공공건물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 IV. 맺음말 - 진단구 매납의 변화와 특징

경주지역의 진단구 매납은 황룡사 9층 목탑을 시작으로 하고 있다. 황룡사는 국가에서 건립한 國刹로서 그 중요성이 대단하였으며 대지 자체가 늪지의 성격을 띠고 있어 건물에 대한 걱정과 염원이 컸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구층목탑은 기술상의 한계로 백제의 아버지를 불러 조성하였다는 기록도 전해진다. 기초 부 축성에 많은 공을 들였음은 발굴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며 국가적인 의례행사가 있었음은 매납된 진단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진단구의 내용 또한 금동제 이식, 각종 옥류 등의 화려한 장신구류와 생활용구 등의 귀중품이다.

우리나라의 지신에 대한 개념은 불교가 수용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토착 신앙과 먼저 수용되었던 도교<sup>36)</sup>의 영향으로 이미 존재하였다<sup>37)</sup>. 이러한 사상적 위태 불교의 영향으로 물품을 공양하는 제의 행위로 발전하여 진단구가 매납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초기의 경주지역 진단의례는 국가를 중심으로 한 왕족 및 귀족의 행사였음을 황룡사지를 통해 알 수 있다. 황룡사지의 진단구는 기단축성과정 중 散置한 것으로 내용물이 화려하기는 하나 유물의 종류나 배치는 아직 일정하지 않다. 금속제 용기의 경우 뚜껑을 덮거나 내부에 다른 물품을 넣어 바로 놓은 것<sup>38)</sup>이 있어 이후 정치방식의 등장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황룡사 직후의 진단구 매납유적은 동궁으로 추정되는 임해전지, 북궁으로 추정되는 전량지와 왕경

<sup>36)</sup> 김창호, 1999, 『浦項 興海出土 壺의 圖像으로 본 古新羅의 道教 傳來』, 『道敎文化研究』 13.

<sup>37)</sup> 6세기 초반 백제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매지권에서 지신에 대한 관념을 찾아볼 수 있다.

<sup>38)</sup> 합류와 같이 기고가 높은 것은 옆으로 넘어진 상태로 출토되어 고정하지 않고 그냥 놓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이후의 定置와는 차이가 있다.

SIE1유적 등으로 역시 왕족 및 귀족계층과 관련된 유적이다.

한편 황룡사 9층 목탑의 진단구는 중국제 백자소호이므로 일정시기가 지난 후의 2차의 진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소호는 8세기대로 추정되는 유물로 매납방법에서도 다른 용기류와 달리 적심석 사이에 안정되게 끼우고 덮개돌을 덮어 확실한 정치방식을 보이고 있다. 9층 목탑의 수리 및 재건의 기록으로 보아 충분히 2차 매납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진단구 매납방법의 변화를 보여주는 유물이다.

황룡사지 다음 7세기 중반이후에는 각 건물지 유적마다 거의 빠짐없이 진단구가 확인되며 출토양도 많아 왕경의 축조가 매우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儀鳳四年皆土’ 銘의 기와<sup>39)</sup>도 이 시기의 것으로 진단구와 함께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기중에 있어서도 정형화를 이루어 합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합은 생활용기 또는 의례용기로 사용된 것으로 진단구 외에 의례용으로는 장골용기<sup>40)</sup>, 고분의 부장용 및 제의용<sup>41)</sup>으로 사용된 예가 있다.

경주지역이 가장 중심지였던 통일신라시대에는 건물의 축조에 있어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보이게 된다. 즉 지반이 단단하고 집을 짓기 좋은 곳을 골라 가옥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도입된 條坊制에 따라 정해진 구획대로 건물을 짓는 것이다. 이것은 진단의식이 빠른 시간 내에 확산, 보급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였다고 추정된다.

황룡사지 남서편의 왕경 SIE1유적은 위치상 당시 왕경지구 중 가장 먼저 조성된 중심지역<sup>42)</sup>일 뿐 아니라 경주지역에서 유일하게 하나의 坊이 모두 조사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 18개의 가옥으로 이루어진 이 坊은 각 가옥당 거의 빠짐없이 진단구가 매납되고 있으며 단위 건물이 새로 지어지거나 큰 수리가 있을 때에도 진단구가 매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합의 늦은 단계에 확인되는 ‘十’자형의 군집매납은 이 지역에서만 나타나며 두 가지 예 모두 坊의 남동쪽 모서리 부분에서 볼 수 있다. 이는 단위건물

39) ‘儀鳳四年皆土’ 銘 기와 - 월성과 안압지를 비롯한 전량지 등에서 다수 출토하였으며 儀鳳은 당나라의 연호로 의봉 4년은 문무왕 19년(679)을 의미한다. 연구자들은 이 시기에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0) 이전 연구에서 출토지미상의 합은 거의 장골용기로 분류한 경우가 많다. 건물지에서 출토된 합은 먼저 출토위치가 건물의 하부 기단토나 건물앞 마당이라는 점에서 장골용기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1) 국립경주박물관, 1993, 『慶州 隍城洞 石室墳』 - 호석 바깥 매납 토기(대부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5, 『경주 황성동 906-2·5번지 석실분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 호석주변을 따라 인접하여 각각 시기가 다른 합 및 유개호 3점 출토

42) 李恩碩, 2002, 『新羅王京의 都市計劃小考』, 新羅文化同人會發表要旨.

이나 한 가옥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한 坊 전체에 대한 의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군집매납의 출현은 의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단순히 건물 하부에 단독으로 매납하는 형식에서 여러 점을 배치하는 개념이 도입된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특히 ‘十’자가 중앙과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정확히 배치되어 음양오행설과도 관련됨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토기의 하부에 자갈을 깔고 붉은색의 안료를 뿌리거나 칠하여 벽사의 의미를 더하고 있어 진단의례가 보다 다양화·복잡화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합 사용기에 함께 나타나는 기종인 적갈색연질소용은 진단구용으로 제작된 기종으로 판단되나 출토량은 합에 비해 매우 적다. 출토유적의 성격이 모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황남동 194-11·12번지는 대릉원 주변의 건물지 유적으로 명문외를 통해 관청유적으로 밝혀졌다. 또한 서부동 19번지 유적은 통일신라시대 너비 12m가량의 큰 도로변의 건물유적이며 후에는 조선시대 옥지가 들어선 곳이다. 또한 이 두 유적의 연질소용에서는 내부에서 유리구슬이 확인되었다. 이는 합 사용시기의 진단구 매납에 어느 정도 신분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羅末麗初가 되면 합이 주류를 이루었던 진단구의 기종에 변화가 나타나 장동호 및 단경호가 등장한다. 이것은 당시 소형기종의 자기 대체와 불교계의 經塚<sup>43)</sup>의 등장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황룡사지와 전 인룡사지에서 석탑과 석등 기초부 주변에 장동호 및 단경호가 수점 매납된 경우가 확인되는데 이것은 불경을 매장하는 경총으로 추정되며 호류는 經筒의 역할, 또는 경통의 외용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직 정확한 내용물이 확인된 예가 없어 종이로 된 경전만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외 금당이나 회랑, 승방과 같은 부속 건물의 기단부에 매납된 호류는 이후 일반 건물지에서도 장동호가 매납되는 양상으로 볼 때 진단구의 기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 전기가 되면 장동호 계통이 진단구로서 일반 건물지에도 정착되며 기종의 변화와 함께 봉납물에도 변화를 보여 견과류 등의 일반적인 곡물의 공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진단구는 건물 하부 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다수 매납되며 단독매납과 함께 2점 이상이 인접하여 매납되는 예가 많다. 그러나 전시기와 같이 十자 등과 같이 정형성을 띠는 예는 없다.

이상과 같이 경주지역의 진단구는 황룡사지를 시작으로 하여 고려 전기가

43) 이난영, 2000, 『한국 고대의 금속공예』, 서울대학교 출판부, 191~198쪽 ; 石田茂作, 1977, 『經塚』, 『新版 佛教考古學講座』第6卷 經典・經塚 雄山閣.

지 기종의 변화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매납된 것을 알 수 있다. 진단구는 기종이나 봉납물 등 구성물은 점점 소박해지는 것에 비해 매납위치가 다양해지고 군집매납이 나타나는 등 의례 절차는 변화하면서 복잡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보고서 및 발굴조사자료

- 國立博物館, 1963, 『鬱陵島』.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8, 『雁鴨池』.  
釜山大學校博物館, 1983, 『울주 화산리고분군』.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84, 『皇龍寺』 I.  
이상해, 1987, 『II. 宮闕制度』, 『勤政殿 實測調査報告書』, 文化財廳, 68~74쪽.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1987, 『統一新羅·高麗질그 릷』,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特別展圖錄.  
경주고적발굴조사단, 1988, 『芬皇寺담장 新築地遺構調査報告』.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89, 『중요발견매장문화재도록』 제2집.  
慶州文化財研究所, 1990, 『年報』 創刊號.  
慶州文化財研究所, 1992, 『V. 침성대 서편지역 발굴조사』,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 緊急發掘調査報告書 I.  
慶州文化財研究所, 1992, 『VII. 황남동 194-10번지 건물신축부지 발굴조사』,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 緊急發掘調査報告書 I.  
慶州文化財研究所, 1993, 『II. 황남동 194-9번지 건물신축부지 발굴조사』,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 緊急發掘調査報告書 II.  
國立慶州博物館·慶州市, 1993, 『慶州 隍城洞 石室墳』.  
明知大學校博物館, 1994, 『龍仁佐恒里高麗墳墓群發掘調査報告書』.  
호암미술관, 1994,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 발굴조사보고서』 I.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1995, 『皇南洞192-4番地』, 『慶州隍城洞601-2番地 皇南洞192-4番地 發掘調査報告書』.  
慶州文化財研究所, 1995, 『乾川休憩所新築敷地發掘調査報告書』.  
慶州文化財研究所, 1995, 『殿廊址·南古壘 發掘調査報告書』.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1996, 『財買井址發掘調査報告書』.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1997. 2. 21, 『경주시 동천동(7B/L내)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및 지도위원회 자료.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1997. 5. 18, 『동천동 7B/L내 도시유적 발굴조사보고』, 指導委員會 會議資料.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1997. 8. 30, 『경주시 동천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유적발굴조사』.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 경주대학교 박물관, 1998. 8. 13, 『경주시 동천동 7B/L내 도시유적 발굴조사보고』, 第3次 現場說明會資料(追加調査分).
- 경주동천동유적발굴조사단, 1999. 2, 『경주시 동천동 7B/L내 고대 도시유적 발굴조사 구역내 靑銅 生産 工房址 遺構』, 현장설명회 자료집.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1999, 『발굴유물특별전』, 26~27쪽.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 韓國담배人蔘公社, 1999, 『慶州市 東部洞 159-1番地 建物址 發掘調査 報告書』.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0, 『淸州 龍岩遺蹟』I.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2002, 『왕경유적 I - 隍城初等學校 講堂敷地』, 『석장동유적 III』.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2, 『慶州 西部洞4-1番地遺蹟』.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3, 『慶州 西部洞 19番地 遺蹟 發掘調査報告書』(統一新羅 道路 · 建物址, 朝鮮 獄址).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3, 『慶州 皇南洞 新羅建物址』-194-11 · 12番地 大陵園化粧室 新築敷地-.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3, 『慶州 皇吾洞118-6番地遺蹟』.
- 俞惠仙, 2003, 『경주 북문로 유적 매납유물 내부토양에 대한 잔존지방산분석』, 『慶州 北門路 王京遺蹟 試 · 發掘調査 報告書』, 韓國文化財保護財團 · 慶州市, 714~721쪽.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 慶州市, 2003, 『慶州 北門路 王京遺蹟 試 · 發掘調査 報告書』.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4. 10, 『傳 인용사지 지도위원회의자료』.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4, 『慶州 東川洞793番地遺蹟』.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4, 『慶州 城乾洞342-17番地遺蹟』.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5, 『경주 황성동 906-2 · 5번지 석실분 발굴조사 현장

설명회 자료.

논문·단행본 - 국문

- 金正基, 1978, 「舍利莊嚴의 新例」, 『考古美術』 138·139 합집.
- 姜友邦, 1980, 「味吞寺址 三層石塔 基壇部 및 基礎發掘調査 略報」, 『박물관신문』 104.
- 鄭明鎬, 1986, 「고려시대의 질그릇(土器)」, 『考古美術』 171·172.
- 姜敬淑, 1987, 「慶州 拜里出土 土器骨壺 小考」, 『삼불김원룡교수정년퇴임 기념논총』, 일지사.
- 趙由典, 1987, 『新羅皇龍寺伽藍에 관한 研究』.
- 崔秉鉉, 1987, 「新羅 後期樣式土器의 成立試論」, 『삼불김원룡교수정년퇴임 기념논총』, 일지사.
- 秦弘燮, 1988, 「高麗時代의 舍利莊嚴具」, 『考古美術』 180호.
- 鄭吉子, 1989, 『新羅時代의 火葬骨藏用土器 研究』 崇實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최 건, 1990, 「統一新羅時代 硬質陶器의 傳統繼承과 中國陶磁文化의 受容에 關하여-특히 韓國靑磁發生時期를 중심으로-」, 『韓國磁器發生에 관한 諸問題』 제1회 동원기념 학술대회발표요지.
- 崔孟植, 1991, 「統一新羅 줄무늬 및 덧띠무늬 토기병에 관한 소고」, 『문화재』 제24호, 文化財管理局.
- 李熙濬, 1992, 「慶州錫杖洞 東國大 構內出土 藏骨器-中國靑磁가 伴出된 例」, 『嶺南考古學報』 11.
- 趙由典, 1992, 「新羅 皇龍寺 九層木塔址 基壇土 出土 遺物의 性格」, 『中齋張忠植博士華甲紀念論叢(上)』.
- 姜昌和, 1994, 「統一新羅時代土器의 變遷에 對한 研究」, 嶺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李熙濬, 1994, 「부여 정립사지 蓮池유적 출토의 신라 인화문 토기」, 『韓國考古學報』 31.
- 朴淳發, 1998, 「羅末麗初 土器 編年 豫告」, 『韓國古代史와 考古學』, 학연문화사.
- 이은석, 1998, 「新羅 皇南大塚에 관한 研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尹相惠, 2000, 「6~7世紀 新羅土器 相對編年 試論」, 서울大學校 碩士學位

論文.

- 이난영, 2000, 『한국 고대의 금속공예』, 서울대학교 출판부.
- 李相吉, 2000, 『靑銅器時代 儀禮에 관한 考古學的 研究』, 대구효성기독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남원, 2000, 『고려시대의 陶器와 靑瓷』, 『제3의 전통, 옹기의 원류를 찾아서』,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 양정석, 2001, 『황룡사 가람변천과정에 대한 재검토 - 동·서 건물지의 토층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24, 한국고대사학회.
- 崔秉鉉, 2001, 『新羅初期 石室墳의 樣相』, 『韓國考古學報』 44.
- 洪潛植, 2001, 『6~7世紀代 新羅古墳 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李承一, 2002, 『高麗墓 出土 中國錢에 대한 研究』,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李恩碩, 2002, 『新羅王京의 都市計劃小考』, 新羅文化同人會發表要旨.
- 金成泰, 2003, 『三國 및 統一新羅時代 竪穴遺構의 用途에 대한 一考』, 『嶺南文化財研究』 16, 嶺南文化財研究院.
- 崔喆熙, 2003, 『高麗時代 竪그릇의 型式分類와 變遷過程-瓶·壺·大壺을 中心으로』, 한신대학교 碩士學位論文.
- 韓惠先, 2003, 『경기지역 출토 고려시대 竪그릇 연구』,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金昌儁·李仁淑, 2004, 『慶州 皇吾洞326-1 建物址遺蹟』, 『박물관연보』 창간호, 경북대학교박물관.
- 최광식, 2004, 『한국고대의 제사의례와 제사유적』, 『先史와 古代의 儀禮考古學』 한국상고사학회 발표요지.
- 洪潛植, 2004, 『統一新羅土器의 上限과 下限 - 연구사 검토를 중심으로』, 『嶺南考古學報』 34.

논문·단행본 - 일문

- 水野清一·小林行雄, 1959, 『圖解 考古學辭典』.
- 日本考古學協會, 1962, 『日本考古學辭典』.
- 木內武男, 1966, 『舍利埋納と鎮壇』, 『世界考古學大系』 4, 平凡社.
- 藏田 藏, 1971, 『舍利容器と鎮壇具』, 『新版 考古學講座』 8, 雄山閣.

- 齊藤 忠, 1973, 『新羅火葬骨壺考』, 『新羅文化論攷』, 吉川弘文館.
- 中野政樹, 1975, 『鎮壇具』, 『新版 佛教考古學講座』第2卷 寺院, 雄山閣.
- 森 郁夫, 1977, 『奈良時代の鎮壇具 埋納』, 『研究論集 III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學報』第29冊,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 石田茂作, 1977, 『經塚』, 『新版 佛教考古學講座』第6卷 經典・經塚, 雄山閣.
- 森 郁夫, 1979, 『古代における地鎮・鎮壇具の埋納』, 『古代研究』第28冊.
- 國史大辭典編輯委員會, 1988, 『國史大辭典』第9卷, 吉川弘文館.
- 宮川禎一, 1988, 『新羅 陶質土器の一觀點 -7世紀代を中心として-』, 『古代文化』40-6.
- 宮川禎一, 1990, 『東京國立博物館保管の新羅陶製骨壺』, 『MUSEUM』471, 東京國立博物館美術誌 6月号.
- 姜友邦, 1993, 『韓國古代의 舍利供養具, 地鎮具, 鎮壇具』, 『佛教藝術』209, 毎日新聞社.
- 高正龍, 2000, 『葛項寺石塔と舍利容器-8世紀中葉の印花紋土器-』, 『朝鮮古代研究』2.
- 宮川禎一, 2000, 『新羅印花紋土器の文様分析-慶州雁鴨池出土土器の検討』, 『朝鮮古代研究』2.
- 奈良文化財研究所, 2003, 『古代の官衙遺蹟』I 遺構編.
- 齊藤 忠, 2004, 『日本考古學用語辭典』, 學生社.

Abstract

## A Study on Jindangu at Gyeongju : The burying method and offering gets

Choi, Eun Ah

Archaeologists have continuously investigated historic sites of three Kingdoms and Unified Silla period since 1930s. Through these surveys, we confirm that there are potteries which are various shapes and different sizes at the bottom of buildings.

Even though we founded many kinds of personal adornments in the wood monument at the Hwangyoung temple, these personal adornments have been come into spotlight because of Jindangu in 1980s. After that time, metal and small instruments were identified at the historic sites and finally, Jindangu was generalized.

Jindangu is divided with the sporadically placing and fixed setting according to a burying method. the former is used with various remains including vessels, ornaments, living appliances and the latter is to dig a hole and bury vessels utilizing a brass bowl with a lid, an earthenware, a necked jar. I examine a change and characteristic according to the burying method and offering gets of Jindangu.

The occurrence of Jindangu, sporadically placing type in Hwangyong temple. Thereafter the setting type begins and uses various potteries. The establishment and prevalence of it, usually using a brass bowl with a lid, small soft earthenware, a herd burying type emerges after individual burying type. After that time, a kind of pottery shape is changed and jar with long body and short-necked jar with a flat bottom are used as Jindangu.

Therefore Jindangu is emerged when a nine-storied wood monument of Hwangyong temple is constructed, as Buddhist ritual was adopted on

the concept of the god of the earth that represents the existing aboriginal belief and Taoism. I think that the royal capital was constructed by branch-ruled system(條坊制) and rapidly diffused together. Moreover, a ritual work becomes more various and complex after unified Silla period.

Key words: Jindangu(鎮壇具), sporadically placing method, fixed setting method, individual burying type, herd burying type